

# 情報經濟學의 系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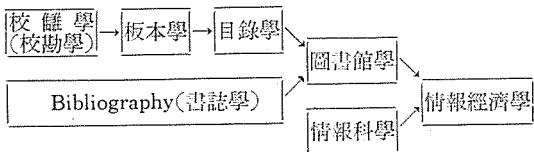
鄭 駿 謨  
中央大圖書館學科教授

이 拙考는 本報의 지난 5月號에 수록한 “情報經濟學의 發想”에 이어 現代圖書館學을 情報經濟學으로 命名할 수 있다는 前提下에서 그 系譜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結論부터 말하자면 情報經濟學의 始源은 東洋의 경우는 中國의 漢나라 時代(330年代)에 발생한 校讎學(校勘學)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것은 清代(1640年代)에 발생한 板本學과도 聯繫性을 가지며, 또한 이들은 清代의 乾隆年間(1790年代)에 발생한 目錄學과 聯繫性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 校讎學(校勘學)·板本學·目錄學은 19世紀末期에 西洋에서 발생한 圖書館學이 東洋에 전파되자 이 圖書館學에 合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西洋의 경우 情報經濟學의 始源은 18世紀 末葉부터 France에서 胎動한 Bibliography(書誌學)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 역시 19世紀 末期에 발생한 圖書館學에 合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圖書館學은 世界第2次大戰을 전후하여 발생한 情報科學의 영향을 받아 그 內容과 性格이 革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들 각각의 概要와 聯繫性을 略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이들의 聯繫性을 圖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校讎學(校勘學)

漢나라가 興하자 前漢의 成帝(BC 25-5)는 秦始皇의 楚書坑儒 이후 古典이 枯渴되어 가는 것을 慨嘆하고 天下에서 遺書를 모아 宮廷文庫였던 秘府에 소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整理作業은 당시의 光祿大夫였던 劉向으로 하여금 經傳 諸子 詩賦의 整理를 담당하게 하고, 步兵校尉인 任宏은 兵書, 太史令인 尹咸은 數術, 侍醫인 李柱國은 方技를 담당하게 했는데, 이때 劉向은 冊마다 校訂이 끝나면 그 篇目を 적고 旨意를 撮錄

하여 上奏하였다.<sup>1)</sup> 이것을 「叙錄」이라고 하며, 이것을 토대로 후에 다시 書冊을 編輯하였는데 이를 別錄(20卷)이라고 한다.<sup>2)</sup>

劉向은 이 事業을 完成하지 못하고, 別世(BC 6)하여 哀帝는 劉向의 아들 劉歆에게 命하여 이를 完成시켰다. 劉歆은 아버지의 遺稿를 類別로 구분하고 整理하여 「七略」(BC 5)이라고 標題하였다.

校讎學은 이 당시 秘府에 소장되었던 각종의 資料를 整理할 때에 校正作業을 한데서 비롯하며 그 內容은 脫誤의 訂正, 重複의 刪削, 書名의 訂正, 編次의 識別, 內外篇의 分析, 佚文의 增補<sup>3)</sup>등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蔣元卿은 실례를 들어서 「荀子勸學篇」을 校正하려면 「大戴禮記勸學篇」을 對照해야 하고, 「韓非子初見秦篇」을 校正하려면 「戰國策」을 보아야 하고, 「禮記目令篇」을 校正하려면 「呂氏春秋」와 「淮南子」를 對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對校할 資料가 없으면 反證例로써 校正하려는 冊속에서 語法 文字를 勘識해야 한다<sup>4)</sup>고 하였다. 한편 王叔岷은 이를 위하여 輔本을 많이 갖추어야만이 보면서도 모르고 넘기지 않으며, 일부만 보고 넘기지 않으며, 소홀히 校正하는 예가 없다고 前提하고 注疏를 參考함으로써 正文을 修正할 수 있고, 類書를 갖추므로써 逸文을 訂正할 수도 있고, 佐證關係書를 具備해 놓으므로써 引用을 추적할 수 있고 字句에 익숙함으로써 文意를 알아낸다고 하고, 考證과 解析과 註解를 통해서만이 作者의 意圖를 考證해 낼 수 있다고 하며, 흔히 볼 수 있는 通假字와 보기 드문 通假字와 정해지지 않은 通假字등을 통해서 著者의 意圖를 정확히 究明해야 한다<sup>5)</sup>고 하였다.

그리고 校讎學이나 校勘學의 語源은 校는 한사람이 校正하려는 底本과 對比하려는 參考資料를 자신이 직

- 1) 班固撰 顏師古註 漢書藝文志, 香港, 大平書局, 1963. p.2.
- 2) 姚振宗編. 七略別錄
- 3) 蔣元卿著, 校讎學史, 臺北, 商務印書局, 民國58(1969) p.35.
- 4) Ibid., p.162.
- 5) Ibid., J 2a.

접 校正하는 사실을 일컬음이고, 離는 한 사람이 對比하려는 參考文獻을 쥐고 그것을 읽어가면 다른 한사람은 校正하려는 底本을 對比하되 精密을 기하기 위하여 冊을 읽어주는 사람과 怨讐처럼 마진다는 뜻에서 離字를 부쳤으니<sup>6)</sup> 본래는 두 사람이 校正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後世에 와서 한사람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에서 ‘勘은 校’<sup>7)</sup>라는 同意語로 써서 校勘學으로 불려왔다.

이와 같이 校離나 校勘은 얼핏 생각하면 오늘날의 校正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은 叙錄이나 別錄이나 七略등의 國家的인 事業으로 정리된 文獻을 성취하기 위한 부분적인 절차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는 모든 冊이나 情報資料는 현재와 같은 종이에 記錄되었거나 印刷된 資料가 아니고 龜甲이나 獸骨이나 木板, 竹簡, 竹帛 등에 筆寫되었거나 刻銘된 資料로서, 이를 각각의 內容과 主題에 따라서 類別하고 校正하고 전체적으로 整理해서 「叙錄」이나 「別錄」이나 「七略」을 編纂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전반적인 情報資料의 整理인 동시에 學術文化의 總整理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訓話를 통하고 故事를 考證<sup>8)</sup>하는 學究的立場에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誤謬를 訂正하고 전반적인 情報資料를 分類·編目하고 整理하여 體系化했다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情報資料를 신속 정확하게 檢索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目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筆者는 이를 情報經濟學的의 始源으로 보는 것이다. 中國圖書館學會에서 編著한 「圖書館學」<sup>9)</sup>에서도 校離學史를 圖書館學史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일 것이다.

## B. 板本學

清代初期(1640年代)에는 元明刊本들이 너무나 惡劣해서 舊板을 鈔하려는 風潮가 盛行하였다.<sup>10)</sup> 이를 틈타서 書籍商들은 神妙한 計로서 冊의 首尾를 떼어 버리거나 書目を 바꾸거나 字劃을 떼어서 諱(名)로 썼고, 글자를 떼어서 이름을 바꾸고 染色하여 옛날 것같이 하고, 缺本이 있으면 다른 板本을 섞고, 冊이 完全히 없는 것은 他書로 代行하는 風潮가 있었다.<sup>11)</sup> 그중에서도 宋板書를 偽造하는 奸計가 더욱 심하여 그 眞偽를 가릴수가 없었으므로 校離家들은 부득이 版本의 源流와 刊刻의 年月, 人名, 紙墨, 款式<sup>12)</sup>, 前後序跋, 收藏圖印 등을 參考하여 俗刻偽造를 識別해 내는 版本學이 싹튼 것이다.<sup>13)</sup>

板本學은 古來로 述而不作을 美德으로 삼았던 作者의 匿名이나 書名이 未詳한 것, 出版地가 애매한 것, 出版處의 표시가 없는 것, 刊年이 未詳한 것 등을 주로

하여 板本을 識別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東洋의 古書는 특히 刊年의 推定이 매우 막연하다. 따라서 板本의 源流와 人名, 地名, 款式, 前後序跋, 收藏圖印<sup>14)</sup> 등을 우선 推究하고 地名의 沿革으로써 板本을 識別하고, 官制로서 板本의 形態를 識別하고, 撰書人의 時代로써 板刻의 時代를 識別하고, 舊版의 增刊과, 書版의 易主에 대한 改題와, 序跋除祛와, 題記의 剜補와, 年號의 補印과, 割裂控改와, 名家題跋의 偽造與否와, 殘本 節本の 充當<sup>15)</sup>등을 통해서 整理하려는 典籍의 正體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板本學은 板本類와 行款類를 비롯해서 表紙의 紋樣, 題簽, 裝幀, 大小, 外形, 紙數, 序跋, 筆者, 刊記, 作者(撰者), 編者, 所在, 所有者, 諸本, 古筆, 註釋, 研究, 刊行所, 書寫의 日附, 紙質, 藏書人, 識語, 符箋,<sup>16)</sup> 字體, 活字<sup>17)</sup> 등을 통하여 刊年을 推定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板本學은 간단히 말하면 清代에 偽書가 너무나 盛行했기 때문에 이러한 偽書를 識別해내기 위한 方편으로서 出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결국 당시의 情報資料의 淨化를 위한 學問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情報資料를 당대나 後世에 傳達하고 傳承하는데 큰 意義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筆者는 板本學도 東洋에 있어서 校勘學의 뒤를 이은 情報經濟學的의 한 흐름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中國의 蔣元卿에 의하면 “校離學에서 目錄學, 板本學, 校勘學으로 分立된 것이 明白하다<sup>18)</sup>”고 하니 前章에서 말한 바와 같이 校離學이 圖書館學의 始源이라고 본다면 板本學도 圖書館學의 한 源流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中國圖書館學會의 「圖書館學」<sup>19)</sup>에서 板本學史라는 標題를 圖書館學史에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板本學史는 “印刷史 裝璜史 書影史”로 나누어진

6) Ibid., J 2a-b.

7) Ibid., J3a.

8) 蔣伯潛編著, 校醫目錄學纂要·臺北, 正中書局, 民國 46 (1957) p.92.

9) 中國圖書館學會編著, 圖書館學·臺北, 臺灣學生書局, 中華民國 63(1974) p.61.

10) 蔣元卿著, 校離學史·臺北, 商務印書局, 民國 58(1969) p.181.

11) loc. cit.

12) 行款의 形式=邊欄, 板匡, 板心(板口), 中縫, 象鼻, 魚尾, 書耳, 耳題, 欄外題, 木記, 墨等, 墨蓋子, 白匡, 墨團, 陰文, 書眉, 眉批, 書腦, 書背, 書根등의 形式을 말함.

13) Ibid., p.182.

14) Ibid., p.181.

15) 屈萬里, 昌皮得合著, 圖書板本學要略·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民國 44(1955) p.81-91.

16) 山岸德平著, 書誌學序說, 東京, 岩波書店, 1978. p.7-8.

17) 屈萬里, 昌皮得合著, op. cit., p.74-77.

18) 蔣元卿著, 校離學史, op. cit., p.182.

19) 中國圖書館學會編著, 圖書館學 op. cit., p.61.

것으로 생각된다.

### C. 目錄學

目錄學은 清代의 乾隆末年(1790年代)에 王鳴盛이 지은 十七史商榷에 나타난 “目錄之學”이라는 語句가 비로소 나타났으니 이는 清代에 이르러 校讎學에서 目錄學으로 分立된 것이다.<sup>20)</sup> 中國의 許世瑛에 의하면 目錄學은 여러 冊을 分類하고 異同을 구분하며, 大意를 밝히고 同類를 疏通시키며, 學術을 分析하고 源流를 探究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冊을 얻어 볼 수 있게 하는 專門學術이다.<sup>21)</sup>

한편 目錄의 語源은 “目”은 篇目を 가리키며 “錄”은 序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漢書藝文志에 수록된 것으로서 劉向이 秘府의 書冊을 整理할 때 “條其篇目 撮其旨意”란 말에서 그 뜻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이 말은 目은 篇目を 갈라 놓은 것이요, 錄은 整理하려고 하는 冊의 뜻을 拔萃해 낸을 뜻하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目錄學은 校讎學에서 分立된 것<sup>23)</sup>이라고 하지만 板本學 다음에 발생한 것으로서 역시 情報資料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專門의 學問으로서 현대의 圖書館學 또는 情報經濟學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中國圖書館學會에서 編著한 「圖書館學」<sup>24)</sup>에서 目錄學史를 圖書館學史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일 것이다.

### D. 書誌學

西洋의 경우 情報經濟學의 始源은 書誌學(Bibliography)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Roy B. Stokes에 의하면 書誌學은 學問의으로는 18世紀 末葉부터 볼란서에서 胎動했다고 한다.<sup>25)</sup> 그러나 그 源流는 Stephen Gaselee에 의하면 BC 300年頃の Alexandria 圖書館時代부터 비롯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Alexandria에는 거대한 圖書館이 많이 있었고 이를 운영한 司書들의 주요한 기본적인 기능이 書誌의인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6)</sup>

그리고 Bibliography라는 낱말은 본래 “冊을 쓰는 것(writing of books)이었는데 18世紀 末葉부터 “冊에 관해서 쓰는 것”(writing about books)으로 그 의미가 變換되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學問이 胎動한 것이다.<sup>27)</sup>

Walter Greg에 의하면 “書誌學은 資料的인 對象으로서의 圖書에 대한 研究<sup>28)</sup>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書誌學은 圖書를 資料的인 側面에서 研究하는 學問이라는 것이다.

書誌學의 方法은 合理的으로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첫째는 分析的 또는 批評的書誌學이며, 둘째는 體系

的(列舉的) 書誌學이다.<sup>29)</sup> 分析的 또는 批評的 書誌學은 著者性, 版次, 出版年, 出版地 및 版本의 完成 등이 충분히 확정될 수 있게 하는 研究<sup>30)</sup>로서, “圖書에 대해서 活字와 裝幀등의 측면에서 그(圖書)生産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동시에 이를 記錄하는 것”이라고 한다.<sup>31)</sup>

體系書誌學은 參照와 研究를 위해서 개개의 圖書에 대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따라서 간단하거나 혹은 정교한 結果的인 記述項目을 論理的인 유용한 排列로 編集하는 것이라고 한다.<sup>32)</sup> 다시 말하면 體系書誌學은 현대의 圖書館에서의 目錄編纂法과 같은 것이다.

기타에도 歷史書誌學이 있는데 이것은 批評書誌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圖書의 중요성과 그 發展, 그리고 文學史나 古代의 著者의 編纂物에 있어서 그 圖書가 作用하고 있는 그 變遷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圖書에 대한 進化論的研究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日本의 長澤規矩也에 의하면 “書誌學도 圖書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學問으로서 東洋在來의 目錄學과 대등한 것”이라고 한다.<sup>34)</sup> 書誌學이라는 學問名稱은 19世紀末期에 日本에 導入되어 20世紀 初期부터 그 研究가 비롯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書誌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中國에서는 아직도 書誌學이라는 用

20) 蔣元卿著, 校讎學史,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 58(1969) p.17.

21) Ibid., p.178-180.

22) 許世瑛 編著, 中國目錄學史,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民國 43(1954) p.4.

23) Ibid., p.1.

24) 中國圖書館學會 編著, 圖書館學, 臺北, 臺灣學生書局, 中華民國 63(1974) p.61.

25) Stokes, Roy B. The Function of Bibliography. London, Ardie Deutch, 1969. p.12.

26) Stokes, Roy B. Bibliography,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 Stokes, Roy B. op. cit., p.12.

28) Esdaile, Arundell. revised by Stokes, Roy B. A Student's Manual of Bibliography. London, George Allen, 1954. p.22(Bibliography is the study of books as material objects)

29) Ibid., p.23.

30) Ibid., p.24. (... research that the authorship, order of edition, date, place of printing, and perfection copy can be satisfactorily established...)

31) loc. cit., (...to establish them for a book and to record at the same time the details of its production in typography, decoration, and so forth...).

32) Ibid., p.33.

33) Ibid., p.25.

34) 長澤規矩也, 書誌學序說,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 40(1965) p.7.

語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目錄學이나 書誌學은 近代 教育制度에 있어서의 독립된 教科로서의 學問을 이루지 못하고 補助科學의인 性格을 띄우고 있었으나 現代의 圖書館學 또는 情報經濟學에 포괄됨으로서 그것이 專問的인 教科目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代의 出版印刷術의 발전에 따른 情報資料의 폭발적 증가와 모든 學問의 細分化와 專問化로 인해서 目錄學이나 書誌學은 現代의 文獻에 대해서는 無氣力하게 되었다. 따라서 目錄學이나 書誌學은 그 研究對象이 주로 近代以前의 圖書에 限定된다 고 볼 수 있다.

### E. 圖書館學

圖書館學은 19世紀初에 獨逸의 Schrettinger에 의해서 唱導되었고, 19世紀 末期에 美國의 Dewey와 獨逸의 Dziatzko에 의해서 現代의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制度의인 獨立된 學問으로 급속히 發展하였다.

ALA의 「圖書館用語集」에 의하면 「圖書館學이란 印刷 또는 書寫된 記錄類의 認識, 蒐集, 組織, 利用에 관한 知識 및 技術<sup>35)</sup>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學은 圖書館의 資料를 中心으로 한 그 認識, 蒐集, 組織, 利用에 관한 圖書館에서의 實務活動에 필요한 知識 및 技術」이라고 規定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圖書館學은 印刷 또는 手書된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 組織, 運用하는 知識 및 技術<sup>36)</sup>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ALA의 定義를 그대로 踏襲한 것이다. 다만 ALA의 定義에서 “記錄類라는 말을 ‘文獻’이라는 用語로 代用했고, ‘利用에 관한’이라는 말을 ‘運用하는’이라는 말로 代用했을 뿐이다.

이상의 두가지 定義에 있어서 ‘知識 및 技術’을 學問이라고 規定할 수 없는 限 論理的인 矛盾이며, 圖書館學이 體系의인 科學이 아니라는 것을 自處한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草野正名은 “圖書館學은 圖書館奉仕의 體系에 대하여 研究하는 科學이다<sup>37)</sup>라고 定義하고 “圖書館奉仕란 圖書館員이, 圖書館에 集藏하는 모든 圖書館資料를 活用하여, 널리 利用者인 市民에게 效果的, 能率의인 利用에 供하면서, 自由로운 文化的 教育的인 service活動을 行하는 것이다<sup>38)</sup>라고 解説을 附記하였다. 그의 定義는 簡單明瞭한 圖書館學의 本質論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整理해 보면 ‘圖書館學은 知的 文化財의 效果的 能率의인 利用을 위한 文化的 教育的인 奉仕活動의 體系를 研究하는 科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奉仕活動의 보다 具體的인 內容이 무엇인가? 圖書館의 奉仕活動은 一切의 infor-

mation을 蒐集하고 整理 組織하고 分析하고 調整하여 媒介하는 獻身的인 勞力인 것이다. 이것은 教育과 調査研究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結果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筆者는 이것을 ‘教育과 調整研究를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條件을 造成하는 作用’이라고 본다. 그리고 教育과 調査研究의 大前提는 學術과 文化的 暢達에 있으므로 圖書館學은 ‘學術과 文化的 暢達을 위한 條件造成의 原理 및 그 體系와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定義한다.

그러나 圖書館學은 圖書의 效果的인 이용을 위한 手段과 圖書館의 運營管理面은 研究對象으로 하는 學問으로서 書誌學의 後身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Roy B. Stokes가 말한 바와 같이 “圖書館學의 모든 기초는 書誌學의인 것<sup>39)</sup>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圖書館學의 教科內容으로 보아 書誌學의 기초위에 圖書館運營管理에 관계된 教科目이 追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日本의 植村長三郎은 圖書館學을 “圖書館經營 및 書誌活動의 學問이라<sup>40)</sup>고 한다. 그러므로 筆者는 圖書館學은 종래의 校勘學이나 目錄學이나 書誌學등의 後身으로서 이들과 聯繫性을 가지는 學問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圖書館이나 圖書館學에서는 주로 從來의 傳統的인 文獻으로서의 圖書의 效用을 위주로 하고, 非 專門的인 一般利用者를 위한 記錄情報과 教育的인 資料로서의 記錄情報에 관심을 기우려 왔으며, 특수한 專門分野의 學者나 技術者들의 研究開發을 위한 斷斷的인 情報資料의 效用에 대한 관심은 不足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19世紀 末期 科學技術과 學問은 계속적으로 發展하여 分化하고 專門化하였으며, 이와 같이 專門化됨에 따라서 專門分野에서 相互間에 傳達를 필요로 하는 文獻들이 急速度로 生産되고 擴大되어 왔다. 專門的인 學者나 技術者들이 研究開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情報은 이미 體系화된 大衆的인 文獻이나 教育的인 文獻보다도 주로 특수한 專門的인 文獻과 당해 主題分野의 最新의 先行研究文獻으로서, 斷片的인 情報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圖書館의 일반적인 分類方法이

35)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LA, 1943.

36)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用語集,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37) 草野正名, 圖書館學原論, 東京, 內田老鶴園, 1963, p. 28.

38) Ibid., p. 29.

39) Stokes, Roy B. "Bibliography" in *The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 419.

40) 植村長三郎, 圖書館學·書誌學辭典, 東京, 丸善株式會社, 1954. p. 2.

나 目錄에 의해서는 그 요구가 充足될 수 없었던 것이나, 圖書館學은 本來 그 名稱自體도 非論理的이었으며 그 큰 缺陷은 上述한 바와 같이 특수한 專門分野의 學者나 技術者들의 情報效用に 관한 問題를 注視하지 못한 點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특히 科學技術分野나 醫學分野에서는 각각 自己分野에 있어서의 有益하고 필요한 情報를 相互間에 效果의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적이 당해 主題分野의 文獻 가운데 주로 學術의인 論文集이나 專門의인 研究誌(journal) 또는 特許文獻 가운데 收錄된 필요할 情報를 迅速하고 正確하게 檢索하기 위한 索引法을 發展시켜 왔으며, 近年에는 computer에 의한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方法을 開發하여 대부분의 情報效用力을 computer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研究分野를 情報科學이라고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 F. 情報科學

#### 1. 情報科學의 發端

美國의 數學者 Willian Goffman은 情報科學의 起元은 급증하는 科學文獻을 制御(contral)하는데 있어서의 人間의 노력을 컴퓨터로 代치하기위한 시도로서 世界第二次大戰과 그 餘波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41)</sup>

컴퓨터는 1946년에 출현한 ENIAC으로 부터 비롯하는데 그후 약 40年間 컴퓨터의 概念도 상당히 變遷되어 왔다. 우선 당초에는 計算處理가 주된 기능이었으나, 곧이어서 大量의 事務데이터를 處理하는 統計處理的인 것으로 발전하여 事務의 機械化를 위한 手段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50年代에는 生産管理등의 管理機械的인 것으로 부터 散在하는 情報集團을 有機的으로 統合하고 加工하고 分析하고 關聯性的 발견이나 社會現象, 經濟現象의 시뮬레이션등을 行하고,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와 같은 經營管理的인 手段에도 사용되게 되었다.

美國의 圖書館學者 Jene H. Shera에 의하면 1950年代와 1960年代 初期에 情報檢索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새로운 方法을 探究하는데 科學文獻處理專門家와 圖書館專門家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를 달성했다고 하며 이것이 情報科學이라고 하는 概念을 導出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sup>42)</sup>

이를 미루어 보면 컴퓨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能力이 다양해지자 文獻情報專門家들이 散在하는 情報集團을 有機的으로 統合하고 加工하고 分析하고 關聯性을 발견하여 效果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情報檢索시스템을 설계하여 컴퓨터에 적용시켜서 그 기능을 더

욱 발전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情報科學이 出現하는데 다음의 두가지 영향이 컸다고 한다. 즉 그 첫째는 이른바 數學的 通信理論<sup>43)</sup>으로서 한 電話線의 情報 혹은 信號送信과 容量에 관한 Shannon과 Weaver의 著作이었다. 둘째는 이른바 Cybernetics<sup>44)</sup>로서 情報傳達에 관한 문제를 통일적인 입장에서 研究한 Nobert Wiener의 著作이었다고 한다.<sup>45)</sup>

Shannon은 數學的通信理論에서 '정보는 일반적으로 어떤 決定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情報의 量을 確率의인 概念을 기초로 하여 數學的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情報傳達에 관한 理論을 體系化했던 것이다.

Wiener의 Cybernetics는 人工頭腦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人間과 機械에 있어서의 制御와 通信의 理論 및 技術을 研究한 것이다.

Wiener는 Cybernetics에서 情報를 定量化하고자 하는 示唆과 雜音에 대한 統計學的인 理論을 수립하고 Feedback 또는 合目的의行動을 나타내는 機械에 관해서 考察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릇 모든 組織이, 활동하는 指令手段의 일체가 情報라고 생각하고 情報는 通信과 制御의 技術에 共通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Shanon의 數學的通信理論과 Wiener의 Cybernetics에 의하여 현대의 情報理論의 기초가 完成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가지 研究는 文獻情報研究者들로 하여금 情報檢索分野에 있어서의 그들의 作業(시스템개발)을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가능한 有用性을 위한 다른 分野의 作業의 多樣性을 探究하기 위한 想像力을 촉진시켰다.<sup>46)</sup> 이러한 모든 活動은 실질적으로 國立科學財團(National Science Foundation), 美國航空社(U.S. Air Force), 美國教育省(U.S. Office of Education), 및

41) Goffman, Willian. Information Science, Disciplin or Disappearance? ASLIB Proceedings 22(1970) pp.589-595.

42) Shera, Jesse H.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1976. p.110.

43) Shannon, Clande E. and Weaver, Warren.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4(1970), p.23.

44) Wiener, Nobert. Cybernetics. New York, Wiley, 1948.

※ Cybernetics의 語源은 俄語어 Kubernet(舵手)인데 外部環境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動作을 取하고자 스스로 制御해가는데 관한 理論으로서, 이 理論은 第2次大戰中에 高射砲로 戰闘機를 사격할 때 전투기의 미래의 位置를 예측해서 發射하는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45) Shera, Jesse H. op. cit., p.110.

46) loc. cit.

國立保健研究所(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와 國立醫學圖書館등의 政府機關으로 부터의 先支援의 效力에 의해서 촉진되었다.<sup>47)</sup> 더구나 당시는 스푸트니크(人工衛星)時代로서 美國은 宇宙空間에 대한 소련과의 경쟁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컴퓨터에 의한 科學的 通信의 발전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이다.<sup>48)</sup>

그러하여 컴퓨터에 의한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 또는 情報檢索에 관한 限 初期에는 文獻情報活動(Documentation)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情報檢索(Information retrieval)이라고 하고, 그후는 情報科學(Information Science)이라고 한다.<sup>49)</sup> 현재는 情報檢索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scheme)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情報檢索에 通用될 수 있는 標準化問題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코딩(coding)문제이며, 言語學이나 數學이나 論理學이나 索引 등등의 문제라고 한다.<sup>50)</sup>

## 2. 情報科學의 概念

情報科學에 대한 定義는 다양하다. 美國의 情報科學會 會長인 Robert S. Taylor에 의하면 “情報科學은 情報의 本質(property)과 行態(behavior),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要因 및 最適의 接近性과 利用性을 가지도록 情報를 加工處理(processing)하는 手段을 研究하는 學問<sup>51)</sup>”이라고 한다. 그리고 “情報科學은 情報의 發生, 蒐集, 組織, 檢索, 解釋, 傳達, 變換 및 利用에 관련된 知識의 總體를 다룬다<sup>52)</sup>”고 한다.

한편 美國의 圖書館學者인 Phyllis A. Richmond에 의하면 “情報科學은 모든 主題分野에 있어서의 모든 종류의 情報의 蒐集, 處理, 蓄積造作 및 配布에 관한 知識의 總體라고 한다.<sup>53)</sup>”

그리고 역시 美國의 圖書館學者인 Jesse H. Shera는 “情報科學은 커뮤니케이션現象과 커뮤니케이션의 本質에 관한 研究라고 한다.<sup>54)</sup>”

또한 北川敏男씨를 비롯한 日本의 情報科學者들은 “情報科學은 機械, 生體,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情報의 發生, 傳達, 蒐集, 蓄積, 處理에 관한 一般의原理를 究明하는 새로운 學問分野<sup>55)</sup>”라고 한다.

기타에도 情報科學에 대한 여러가지 定義가 있으나 이와 같이 定義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情報科學은 그 범위가 넓고 역사가 짧으며, 아직 學問으로서의 體系가 定立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에서 예시한 가운데 美國의 Taylor의 定義와 日本의 北川 등의 定義를 검토하여 整理해 보고자 한다.

위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兩者의 定義는 그 表現 方法이 다르다. 그리고 이 兩者의 定義는 根本的으로는 內容上의 差異點은 없으나 觀點에 있어서 약간 混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Taylor 등의 情報科學의 定義를 檢討해 보면 “情報

의 本質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그 本質을 이룰 수 있는 屬性이 問題가 되며, 情報의 行態를 究明하기 위해서는 情報全般에 걸친 現象이 問題가 된다. 그리고 “最適의 接近性과 利用性을 가지도록 情報를 加工處理(processing)하는 手段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그 具體的인 事項이 “情報의 蒐集 組織 檢索 解釋 傳達 變換 및 利用에 관련된 問題”이며, 이러한 문제를 科學的으로 效果의으로 처리하는 것이 結局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手段”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복된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北川씨 등의 定義를 檢討해 보면 “情報의 發生” 問題는 즉 情報가 어떻게 發生하느냐 하는 問題를 究明하기 위해서는 情報의 屬性과 本質이 무엇이나를 究明하는 것이 前提가 되며, “情報의 傳達” 問題는 情報全般에 걸친 現象과 行態가 어떠한 것인가를 究明하는 것이 前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情報科學에서는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에 관한 一般의原理” 뿐만 아니라 Taylor씨가 말한 바와 같이 “組織 檢索 解釋 傳達 變換 및 利用에 관한” 모든 問題가 그 研究對象이 되며, 그 目的은 情報의 效果的인 利用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整理해 보면 情報科學은 情報의 屬性과 本質, 그 現象과 行態, 및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科學的인 手段을 研究하는 學問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情報科學은 ‘情報의 效果的인 生産과 傳達 및 그 效果的인 利用을 위한

47) Ibid., p.111.

48) loc. cit.

49) loc. cit.

50) loc. cit.

51) Taylor, R.S.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n Science and Technology. in C.A. Cuanda (ed.)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1.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6.

(Information Science is that discipline that investigates the properties and behavior of information, the forces governing the flow of information, and the means of processing information for optimum accessibility and usability)

52) loc. cit., Information science is concerned with that body of knowledge relating to the origination, collection, organization, storage, retrieval, interpretation, transmission, transforma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53) Shera, Jesse H.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Lit tleton, Libraries Unlimited, 1976. p.111.

54) loc. cit.

55) 北川敏男. 情報科學의 視座. 東京, 共立出版株式會社, 昭和45(1970). p.3.4.

情報化社會事典. 毎日新聞社編. 東京, 毎日新聞社, 1971 p.56.57.

大泉充郎. 情報科學의 期待. 東京, 計測制御學會, 1965. 10(vol. 4. no. 10) p.653.654.

制御手段을 研究하는 學問인 것이다. 情報科學은 이러한 思考方法을 基盤으로 하여 人間의 能力을 擴大할 可能性을 追求하고자 하는 새로운 學問分野라고 볼 수 있다.

3. 情報科學의 範圍

情報科學은 상호간에 依存하고 協力해야 할 다음과 같은 세가지 分野로써 構成되고 있다.

a. 情報理論의 樹立: 情報科學의 전반에 걸쳐 理論模型을 提供하고 情報現象의 解明과 情報傳達方式의 開發에 이바지된다. 通信理論, 制御理論, Automaton論 (計算機理論을 包含한다)은 이러한 廣義의 情報科學理論 가운데 包含된다. 情報理論은 論理數學, 統計數學, 計劃數學, 制御數學, 計算數學을 基초로 하고 學習理論, 自己組織化論, 言語理論에 이르는 범위를 이미 確立하고 있다.

b. 情報現象의 解明: 情報科學의 接近으로서 機械를 情報處理機能의 觀點에서 究明한다. 生物界의 諸現象에서는 生體情報論의 立場에서 解明해야 할 것이 많다. 感覺情報, 中樞神經系를 究明하는데 있어서는 情報理論의 樹立과 情報傳達方法의 開發에 관한 知識·技術을 利用하는 것이 必須의이다. 逆으로 生體情報論으로서 얻어진 現象의 解明은 情報理論의 發展, 情報方式의 開發에 크나큰 示唆을 준다. 生物現象에서 볼 수 있는 發生, 適應, 遺傳, 進化에도 情報科學의 接近이 期待된다. 특히 遺傳에 대해서는 遺傳情報의 生成傳達에 대한 研究가 生化學의 知識의 確立과 더불어 이미 進行되고 있다. 人間社會에 대해서도 情報에 영긴 諸現象의 解明이 基本的으로 重要하며, 言語學이나 社會學, 教育學, 經濟學, 經營學의 基초를 培養하는 것이 된다.

c. 情報傳達方式의 開發: 情報處理의 system을 開發하는 것은, 첫째 그 構成要素인 因子·回路·裝置의 開發이며, 둘째는 構成原理의 開發이다. 前者는 hardware技術로서 物理科學, 電子工學, 通信工學, 制御工學, 機械工學 등에 대부분 맡겨지고 있다. 後者는 널리 system工學을 發展시키는 起動力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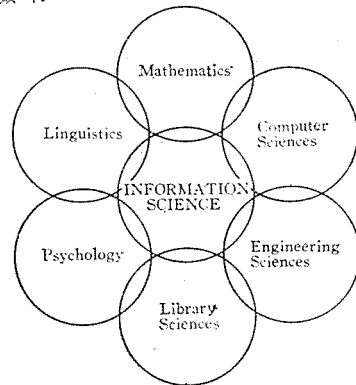
情報科學이 以上の a. b. c의 세가지 方法을 가지고 이를 상호간의 協力에 의해서 전체의 開拓과 發展이 進行되어 왔다고 하는 事實, 將來에도 이것이 基本研究方略이 되어야 한다는 見解는 여기에서 充分히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sup>56)</sup>

情報科學의 研究對象은 광범한 分野에 걸쳐 있다. Computer를 비롯한 각종의 通信機器, 自動制御機械 등의 發達과의 關聯, 遺傳情報, 腦波, 大腦生理, 神經細胞, 꿀벌(蜜蜂)이나 철새(候鳥)등의 方向感覺이나

歸巢本能, 혹은 生命의 人工合成에 관한 生物學的·生理學의 研究分野와의 關聯,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言語나 communication의 解明, 또한 心理現象, 記號行動, 性格形成, 集團에 있어서의 目標나 motivation의 問題, mass communication이나 mass culture의 問題, 知識社會學의 問題, 習慣, 風土의 條件 등을 包含하는 比較文化의 研究, 都市問題 각종의 公式 혹은 非公式組織이나 集團, 官僚制의 權限의 問題, 教育에 있어서의 學習行動, 適應行動, 知識體系의 問題에까지 情報科學의 approach의 影響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美國의 情報科學會·會長인 Robert S. Taylor에 의하면 “情報科學은 數學, 論理學, 言語學, 心理學, computer工學, operations research, 圖書館學, 印刷術, 通信(communication), 經營學 및 기타의 類似分野에서 由來되었거나 또는 상호관련된 綜合科學이라<sup>57)</sup>고 한다. 또한 Borko도 이 Taylor의 見解에 따르고 있다

한편 Kalus Otten씨와 Anthony Debons는 情報科學과 이에 관련된 주요한 學問을 다음과 같은 圖式으로 表示하고 있다.<sup>58)</sup>



여기에서 Taylor가 列舉한 諸學問分野와 Otten과 Debons가 列舉한 諸學問分野를 對比해 보면, 이 兩者間에는 동일한 것이 많으나 Taylor는 Otten과 Debons보다 論理學, operations research, 經營學 등을 더 列

56) 北川敏男, 情報科學의 視座. 東京, 共立出版株式會社, 1970 p.4-6.

57) Taylor, R.S.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C.A. Cuanda(ed.)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1.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6.

58) Borko, H. Information Science: What is it? in Arthur W. Elias (ed.) Key Papers in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D.C. ASIS. 1971. p.1-3.

(Information science is an interdisciplinary science derived from the related to such fields as mathematics, logic, linguistics, psychology, computer technology, operations research, the graphic arts, communication, library science, management.)

學하고 있다.

G. 情報科學과 情報經濟學의 關係

前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美國의 情報科學會長인 Robert S. Taylor씨는 情報經濟學이 情報科學에 있어서의 한 個別科學이라는 것을 示唆하였다.<sup>59)</sup> 그리하여 Borko씨도 Taylor씨의 理論에 따르고 있으며,<sup>60)</sup> Klous Otten 및 Anthony Debons도 이와 동일한 見解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sup>61)</sup>

그러나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圖書館學教授 Jesse H. Shera씨와 University of California의 圖書館學教授 Raynard C. Swank씨는 이와는 判異한 見解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hera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情報科學은 圖書館學(情報經濟學)에 대해서 對立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反對로 이 兩者는 天生緣分이다.”<sup>62)</sup>

“情報科學은 情報科學이 寄與하고 있는 여러 學問에서 理論的인 根據를 誘導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圖書館學의 實際를 위한 理論的 根據이기도 하다.”<sup>63)</sup>

이와 같이 Shera씨는 情報科學과 情報經濟學을 두개의 對等한 同位的 主題로서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Shera씨의 이러한 見解는 分明히 狹意의 情報科學, 다시 말하면 computer를 中心으로 한 情報處理問題에 관한 研究分野를 前提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理由가 되는 根據로서 Shera씨는 그의 동일한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情報科學은 system 分析, 情報와 communication의 環境狀況, 情報 media 및 言語分析, 情報의 組織, 人間組織과의 관계 등등을 包含한다.”<sup>64)</sup>

Shera씨가 여기에서 말한 情報科學의 內容과 範圍를 Taylor씨가 말한 情報科學의 定義에 견주어 보면, Shera씨는 여기에서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要因 및 最適의 接近性과 利用性을 가지도록 情報를 加工處理하는 手段을 研究하는” 部門만을 念頭に 두고 “情報의 本質(property)과 行態(behavior)”에 관한 研究分野는 考慮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Shera씨는 綜合科學으로서의 情報科學을 圖書館學과 對等한 主題로 본 것이 아니라, 前項에서 論及한 이른바 computer 科學을 圖書館學과 대등한 同位主題로 본 것이다.

한편 Swank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情報科學이 圖書館學과 分離된 分野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情報科學은 오히려 圖書館學의 性格에 대한 새로운 洞察이다. 즉 더욱 광범한 概念과 더

욱 正確한 方法論과 多樣한 應用에서 派生한 洞察이다. 그 內容은 圖書館學의 전체적인 범위를 橫斷하고 있으며, 그 核心的인 教科課程을 貫通하고 있다. Documentation과 마찬가지로 情報科學은 圖書館學의 한 擴張이다.”<sup>65)</sup>

이와 같이 Swank씨의 見解는 情報科學은 圖書館學에 共通되는 徹底한 理論과 學問內容 및 正確한 方法을 지닌 것으로서 圖書館學의 또하나의 擴張이며 圖書館學의 範圍 안에서 다루어야 할 새로운 分野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Swank씨의 論旨는 圖書館學이 적용되는 圖書館과 情報科學이 適用되는 情報機構(information systems)를 對比해 볼 때 “藏書構成의 過程, 組織 및 効用은 모든 圖書館과 情報機構에 共通하는 것이다.”<sup>66)</sup> 또한 “記錄된 知識과 그 利用者, 그 知的인 機構 및 奉仕機關, 이 세가지 점에서 圖書館學과 情報科學이 共通한다.”<sup>67)</sup> 그러므로 情報科學이 圖書館學의 教科課程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Swank씨의 主張은 非論理的인 면이 있으며, 多分히 我田引水格이다. 情報科學이 圖書館學과 共通하는 局面이 있다고 해서 情報科學을 圖書館學에

59) Taylor,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p. cit.*, p.6.

60) Borko, Information Science; What is it? *op. cit.* p.3.

61) Otten and Debons, Towards a metascience of information; Informatology. *op. cit.*, p.16.

62) Shera, Jesse H. of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12. 1968. p.65.

(Information science is not antithetical to librarianship; on the contrary, the two are natural allies)

63) *Ibid.*, p.64.

(Information science is striving to derive one a theoretical base from its contributory disciplines, and it is the theoretical base for the practice of librarianship)

64) *Ibid.*, p. 63.

(Information science includes systems analysis, environmental asp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ormation media and language analysis, organization of information, man-systems relationship, and the like)

65) Swank, Raynard C.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Core Library School Curriculum. in *Special Libraries*. January, 1967. p.41.

(I do not believe that information science is a field separated from librarianship. It is rather a fresh insight into the nature of librarianship an insight derived from broader concepts, more exact methodologies, and more varied applications. Its content cuts across the entire spectrum of librarianship and even penetrates the core curriculum. Like documentation, it is an extension of librarianship)

66) *loc. cit.*

67) *loc. cit.*



서 다루어야 할 새로운 分野이며 圖書館學의 擴張이라고 主張할 수는 없다. 그러나 筆者는 여기에서 圖書館學의 教科課程에서 情報科學을 다루는 것이 不合理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圖書館學의 教科課程에서 情報科學을 다루는 것은 다만 Swank씨의 主張처럼 새로이 擴張된 分野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綜合科學으로서의 情報科學은 그것이 形成된 歷史는 짧다 할지라도 圖書館學의 上位의 主題로서 그 理論과 方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導入하는 것이다.

情報科學이 圖書館學의 上位主題라고 하는 論理는 Taylor씨나 Borko씨나 Otten 및 Debos씨의 理論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Swank씨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情報科學의 理論과 內容이 圖書館學과 共通하는 것'이라면 이 兩者가 각각 包括하는 學問의 범위를 對比해 보아도 알 수 있다.

前項에서 밝힌 바와 같이 Taylor씨에 의하면 情報科學은 情報의 本質과 行態,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要因 및 最適의 接近性과 利用性을 가지도록 情報를 加工處理하는 手段을 研究하는 學問이다.<sup>68)</sup>

또한 北川敏男씨에 의하면; "情報科學은 機械, 生體人間社會에 있어서의 情報의 發生, 傳達, 蒐集, 蓄積, 處理에 관한 一般의 原理를 究明하는 學問이다."<sup>69)</sup>

이에 대해서 圖書館學은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組織, 運用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다."<sup>70)</sup> 여기에서 '文獻'을 '記錄된 情報'라고 본다면, 圖書館學은 '記錄된 情報를 認識하고 蒐集 整理組織, 運用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다.

그리하여 圖書館學의 범위를 Taylor씨의 情報科學의 定義에 對比해 보면, 圖書館學은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는 要因 및 最適의 接近性과 利用性을 가지도록 情報를 加工處理하는 手段을 研究하는 學問分野'에 속한다. 그리고 '情報의 本質과 行態'에 관한 問題는 研究對象으로 삼았던 分野가 아니다.

圖書館學은 '情報의 流通을 制御하기 위해서 또는 最適의 接近性과 利用性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記錄된 情報를 認識하고 蒐集 整理組織, 運用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다.

또한 北川씨의 情報科學에 대한 定義에 對比해 보면 圖書館學은 情報科學에 있어서의 '情報의 蒐集, 蓄積, 處理에 관한 研究'分野와 共通한다. 情報科學에서의 '情報의 蓄積, 處理'는 圖書館學에서의 文獻의 整理組織, 즉 分類와 目錄編成에 의한 文獻의 處理에 該當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學에서는 '情報의 發生과 行態'에 관한 問題는 研究對象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情報科學을 情報의 發生(또는 屬性과 本質

에 관한 研究分野, 情報의 傳達(또는 現象과 行態)에 관한 研究分野, 및 情報의 流通制御에 관한 研究分野로 3大區分한다면, 圖書館學은 情報科學에 있어서의 情報의 流通制御 또는 蒐集, 蓄積, 處理에 관한 研究分野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른바 圖書館學은 元來 分類法과 目錄法 즉 體系書誌學이 그 核心이며, 餘他는 圖書館의 實務活動에서 當面하는 現實의인 문제들을 解決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로 導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圖書館管理法이라든가 運營法 등은 行政學이나 經營學에서 導入된 分野다.

그리하여 圖書館의 實務活動에서 要求되는 數種の 學問을 綜合하여 圖書館學이라는 名稱이 주어졌기 때문에 '圖書館學이 學問 또는 科學으로서의 原理나 目的이 一貫하는 體系를 樹立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서 元來부터 그 本質과 體系가 問題가 되어, 오랜 동안 圖書館學이 學問이나 技術이나 知識이나 하는 論議와 批判이 繼續되어 왔던 것이다."<sup>71)</sup>

그리하여 圖書館學에서 情報科學을 導入하는 것은 Swank씨의 主張처럼 새로이 擴張되는 分野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情報科學의 理論과 方法을 基礎로 한 새로운 學問으로 體系化시켜야 할 必要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現代의 圖書館學의 教科目 속에는 情報科學의인 分野의 教科目이 상당히 導入되고 있다. 예를 들면 索引作成法, 抄錄作成法, 文獻情報活動, 情報管理, 情報檢索, 등등은 종래의 圖書館學에는 包含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近年에 情報科學分野에서 導入된 教科目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現代의 圖書館學은 情報科學의 要素가 상당히 導入되어 있고 圖書館學은 본래 그 名稱自體도 非論理的이며, 더구나 情報科學의 理論과 方法論에 따라서 새로운 理論體系로 形成되는 學問名稱으로서는 더욱 不合理하기 때문에 이를 "情報經濟學"이라고 命名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情報經濟學은 情報科學에 속하는 그 下位主題라고 볼 수 있다.

68) Taylor. Professional Aspect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p. cit.*, p.6.

69) 北川敏男. 情報科學의 視座. 東京, 共立出版株式會社, 1970. p.3.4.

70) 鄭馳漢. 學問名稱으로서의 文獻科學에 대한 再考. 도협월보,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9(Vol. 13. no. 9) p.16.

71) 藤名六郎. 圖書館學概論. 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昭和 35(1960) p.21.22.